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2면	도의회 14~23일 임시회... 강특법 조례 등 심의	1
江原日報		[포토뉴스]홍천군.홍천군의회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	2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강릉시 관문 교2동, 설 명절 손님맞이 합동대청...	4
江原日報	21면	[동정]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속초)	4
강원도민일보	16면	속초시의회 의정활동비 110만원→150만원 인상	5
江原日報	13면	속초시의원 의정비 월 '150만원'	5
江原日報	11면	"물환경 규제 특례로 해결해야"	6
江原日報	14면	장성광업소 6월 폐광 ... 대체산업 육성 박차	6
강원도민일보	04면	설 연휴 '후폭풍' 쓰레기 쏟아진 춘천거리 대책 시급	7
강원도민일보	05면	"연휴 노고에 감사" 경찰 밥값 대신 내준 시민 훈훈	8
江原日報	02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경쟁률 '7대 1'	8
강원도민일보	10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고향사랑기부제 함께해요"	9
강원도민일보	12면	동해시 출산장려 인센티브 '최대 250만원'	9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 서면대교 건립 가시화 도로 확장 나선다	10
강원도민일보	10면	'폐철도의 재탄생' 치악산 바람길숲 5월 개통	10
江原日報	11면	횡성호에 450m 출렁다리 놓는다	11
江原日報	10면	강원FC 전용 구장 유치 불씨 재점화	11
강원도민일보	06면	고물가·고유가에 갇혔다...숨 막히는 강원도 소비심리	12
강원도민일보	14면	정선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선 기능보강	12
강원도민일보	16면	고성 거진항~화진포 해양누리길 내달 착공	13
강원도민일보	15면	양구 스포츠행정복합타운 조성 용역 착수	13
江原日報	04면	춘천·원주·화천 '교육발전특구' 공모 신청	14
江原日報	16면	화천군 인구 2만3,000명 붕괴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대병원 삼척분원 진전있어야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동서고속철 성패 역세권 개발에 달려	16
江原日報	19면	[사설] 의대 증원 반발 확산, 국민 피해 우려 총파업 안 돼	17
江原日報	19면	[사설] 총선 승리 조건, 설 연휴 민심을 반영한 공천이다	18

강원도민일보

2024 02 13 ()

02

도의회 14~23일 임시회 ...강특별 조례 등 심의

내일 도지사·교육감 신년연설
특별자치도 지원 특위 등 예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4일 개최하는 가운데 도지사 권한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내용 등 '강원특별법' 관련 조례가 본격적으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 간 제325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4일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신년연설을 시작으로 의정활동비 200만원 인상 범위 내 지급 결정 조례, 위기임산부 지원 조례, 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등이 상정된다.

특히,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강원도 조례 심의가 예고됐다.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세부 내용을 담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조례',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상정된다. 또, '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 조례',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조례' 등이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의원 징계 관련 윤리특별위(21일), 특별자치도 지원 특위(22일), 접경지역개발촉진 지원 특위(22일) 등이 예정돼있다.

이설화·김덕형

江原日報

[포토뉴스]홍천군.홍천군의회 설 명절 맞이 전 통시장 장보기 행사





홍천군과 홍천군의회는 8일 홍천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전통시장 이용 독려, 물가 안정 캠페인, 착한 가격업소 이용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며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이번 행사에는 신영재 홍천군수, 유상범 국회의원, 박영록 홍천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이영욱·홍경기 도의원, 오홍수 홍천부군수, 전성열 NH농협 홍천군지부장 등이 참여했다.

2024 02 12 ()

江原日報

[포토뉴스]강릉시 관문 교2동, 설 명절 손님맞이 합동대청소



강릉시 교2동주민센터(동장:홍삼녀)는 지난 8일 주요 도로변 및 강릉역 일원에서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민센터 공무원과 자생단체 회원 및 최승순 도의원, 박경난 시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강릉역 주변을 비롯한 교2동 주요 도로에 대해 대대적인 대청소를 실시하고 명절 연휴기간 강릉의 관문인 KTX 강릉역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귀성객 및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강릉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江原日報

2024 02 13 ()

21

양봉협회 도지회장 취임식

◇강정호강원특별자치도의원



(속초)은 13일 오전 11시 춘천 도농업인 단체회관에서 열리는 한국양봉협회 강원도지회 제11대 지회장 취임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4 02 13 ()

16

속초시의회 의정활동비 110만원→150만원 인상

주민공청회서 “적극 활동” 요청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속초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일석·이하 심의위)는 지난 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4~2026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월 110만원에서 40만원 인상한 월 150만원으로 결정했다.

앞서 심의위는 지난 1월 4일 1차 회의를 열어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월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2주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주민 의견 및 발표자 접수를 거쳐 지난 2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으며 공청회는 의정활동비인상에 대한 발표자 의견발표 및 상호 질의응답, 방청객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의정활동비인상에 대한 의견으로는 발표자 2명 모두 찬성, 방청객 3명 찬성, 1명 기타의견이 있었으며 공통된 내용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속초시의회 의원의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심의위는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월 150만원으로 결정했고 향후 속초시의회는 지급기준액 범위 내에서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2024~2026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게 된다. 박주석

江原日報

2024 02 13 ()

13

속초시의원 의정비 월 ‘150만원’

심의위 주민 의견 수렴

40만원 인상 최종 결정

【속초】속초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 늘어난다.

속초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제2차 회의를 열어 2024~2026년 속초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4일 1차 회의를 열어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월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주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주민의견 및

발표자 접수를 거쳐 지난 2일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의견으로는 발표자 2명 모두 찬성, 방청객 3명 찬성, 1명 기타의견이 있었으며, 공통된 내용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속초시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요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속초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월 150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향후 속초시의회가 150만원 내에서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의정활동비가 최종 확정된다. 권원근기자

“물환경 규제 특례로 해결해야”

이슈현장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주목

원주시 14건 제시 목은 현안 해결 핵심 의제 대도시 특례 인정 기준 완화 등 신규도 4건

【원주】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서 원주시가 제안한 특례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총 14건의 특례를 제시했다. 이 중 첨단산업 활성화 등 중부내륙권 경제 제일도시의 도약을 위해 물환경 규제의 족쇄를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는 논리가 핵심 의제다.

■“물환경 규제 해소, 지금이 적기”=시는 ‘반도체 도시’ 도약을 위해 강원특별법 개정

안에 관련 특례를 대거 제시했다. 우선 물환경보존법 상의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관련 사항을 환경부로부터 권한을 넘겨 받아 과도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을 막고, 기업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 지정·호저면 일원에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을 삼자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북한강·남한강 수계에 비해 폐수 배출 시설설치제한지역 개선도 포

함시켰다.

수도권 상수원보호 규제지역 내 입주 기업에 대해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설치와 위탁 처리비를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의제로 꼽았다. 이 밖에 원주 국제학교 유치와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비대면 진료 특례, 유치기업 대상 지방세 특례 확대 등이 제시됐다.

■신규 특례 주목=이번 3차 개정안에는 원주시 특례 4건이 신규로 제시됐다. 이 중 대도시 특례의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대도시 사무특례’에서는 인구 30만명 이상인 지자체 중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대도시 권

한을 부여한다. 원주시는 인구는 36만명에 달하지만, 면적이 868.3㎢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강원특별법으로 면적 기준을 8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데이터 통합 이용 활성화 특례’와 ‘도 시군기본계획 수립 의제’, ‘국립공원 내 행위 및 공원계획 특례’도 신규로 제시됐다.

원강수 시장은 “특별자치도 특례는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정당한 요구”라며 “전향적이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특례조항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허남윤기자

장성광업소 6월 폐광 ... 대체산업 육성 박차

태백 3조3천억원대 피해 전망 ... 경제 살리기 나서 시, 청정메탄올시설·문화플랫폼·영화관 등 추진

【태백】태백시가 올 6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침체가 우려되는 장성동 일대에 공공기관 사무실 이전과 영화관 개관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시한 ‘탄광지역 폐광대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장성광업소 폐광시 태백시의 피해 규모는 3조3,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876명(장성동 722명)의 대량실업도 전망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시는 폐광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월 출범하는 태백시설관리공단 사무소를 장성문화플랫폼 1층에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장성동 생활SOC 복합시설에는 올 3월 태백 작은 영화관을 개관하고, 수영장과 체육관 운영을 위한 스포츠과 기간제 및 위탁 직원 8명이 근무하게 된다.

또한 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동돌봄센터 등도 각각 입주한다.

시는 이들 시설이 현재 장성동에 있는 태백경찰서, 태백교육청 등과 함께 상권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장성광업소 폐광 대체산업으로 총 5,219억원을 들여 폐광부지에 청정메탄올

제조시설과 친환경자재시설, 핵심광물 산업단지, 근로자 주택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제진흥 전략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호 시장은 “장성광업소 부지 내에 다양한 대체산업을 유치해 장성동을 태백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광희기자 kwf635@kwnews.co.kr



설연휴 마지막날인 12일 춘천 효자동 주택가에 연휴동안 버리지 못한 쓰레기들이 배출돼 있다.

김정호

설 연휴 '후폭풍' 쓰레기 쏟아진 춘천거리 대책 시급

생활쓰레기 배출금지 기간 끝
인도·도로 쌓여 주민불화 심화

설 연휴가 끝나가는 가운데 춘천시내 곳곳에서 명절기간 동안 인근 상가와 주민들이 인도에 내다놓은 쓰레기가 쌓이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주민 간 불화로 번지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설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 작업이 중단되면서 춘천시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온 쓰레기들이 인도와 도로에 나뒹굴고 있는 상황이다. 설명절 선물 박스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담긴 봉투에

서 흘러나온 오물에 인도는 얼룩졌다. 춘천시 우두동에 살고 있는 김모(43)씨는 "쓰레기를 버려도 왜 횡단보도 쪽에다가 쌓아두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이러다가 차에 사람 치이면 누구 책임이냐"고 말했다. 효자3동 강원대학교 후문 원룸 밀집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투명봉투에 일반쓰레기와 빈강통들이 뒤섞인 상태로 버려져있고, 망가진 매트리스와 가구도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다.

춘천시가 지난달 31일 고지한 설연휴 생활쓰레기 배출 일정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생활쓰레기 배출 금지 기간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만큼 모였던 쓰레기들이 한번에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문제가 발생됐다.

인도에 내놓은 쓰레기로 인한 주민 간 불화도 심화되고 있다. 횡단보도 앞 한창 공사중인 건물의 건물주 A(60)씨는 연휴기간 건물 상태를 확인하려 방문했다 쌓여있는 쓰레기를 발견하고 경악했다. A씨는 "직접 지키고 서서 쓰레기 투기하는 걸 잡던가 무슨 수를 써야지 이 건 말도 안되는 일이다"며 연성을 높였다.

최근 타 지역에서 이사를 와 우두동에서 음식점을 개업한 김모(34)씨는 "너무 무분별하게 인도에 버려지고 있는 것 같다"며 "시에서 뭔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재혁

강원도민일보

05

“연휴 노고에 감사” 경찰 밥값 대신 내준 시민 훈훈

교통정리 두 경찰관에 온정 전달
연휴 없이 고생하는 경찰관들에게 밥값을 계산하고 사라진 ‘무명의 시민’의 사연이 알려져 설날의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12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쯤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에 위치한 춘천안식원과 동산추모공원 일대에서 교통관리계 소속 안중우 경

장과 윤현석 순경은 4시간 30분 동안 성묘객들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현장에 나섰다. 아침 일찍 교통정리에 나선 이들은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이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교통정리에 몰두하고 있었다.

교통 소통이 어느정도 원활해진 낮 12시 30분쯤 동산추모공원 앞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식사할 위해 발길을 돌렸

다. 점심식사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기에 최대한 빨리 먹을 수 있는 해장국을 선택했고, 음식이 나오자마자 뜨거운 해장국을 급하게 먹기 시작했다. 한창 먹고 있던 도중 식당 사장님이 두 경관을 찾아오더니 “뒤에 있던 손님이 설날에 경찰관들이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신다고 밥 한끼 사고 싶다고 하시며 계산을 하셨다”고 전했다.

안경장과 윤순경은 경찰관의 입장으로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 계산을 해주신 분을 뒤쫓아가 몇 번이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밥값을 계산한 무명의 시민은 “고생하시는데 이런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한 뒤 밖으로 나가버렸고, 두 경관은 해당 시민에게 목례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윤현석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은 “당일 눈발도 날리는 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분이 베푸신 온정 덕분에 근무내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국민에게 친절하고 사랑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혁**

江原日報

02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경쟁률 ‘7대 1’

도내서 춘천·원주·철원 신청 강릉 “오벌 활용해야” 목소리 건설비 2천억 전액 국비 지원 선정 결과 이르면 4~5월 발표

속보=국비 2,000억원 지원이 걸린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공모(본보 지난 7일자 2면 보도)에 전국 7개 지자체가 도전장을 던졌다.

대한체육회는 대릉 국제스케이트장 철거에 따른 대체 시설 부지 선정 공모 접수를 지난 8일 마감한 결과 강원자치도 춘천시, 원주시, 철원군을 비롯해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동두천시, 김포시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치 홍보를 활발히 펼쳐 온 지자체와 더불어 공항 접근성, 교통편의를 앞세운 인천 서구, 김포시가 강력한 경쟁자로 합류했다.

대한체육회는 유치제안서 심사, 현지답사를 거친 후 이사회를 통해 최종 부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선정 결과는 이르면 4~5월 발표된다.

지난해 3월부터 유치추진단을 꾸려 일찌감치 준비에 나선 춘천시는 현지답사에 대비해 14일 실무회의를 갖고 PT 발표 등의 완성도를 높여나간다. 춘천시는 송암스포츠타운 내 6만㎡ 면적의 사유지를 경기장 부지로 제공, 토지 소유권 취득

과정의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없애 빠른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수도권 도시들과 달리 의암호 일원에 후보지가 위치해 동계스포츠와 관광, 휴양을 결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철원군은 이현종 군수가 지난 7일 유치 신청서를 직접 대한체육회에 제출하며 강한 유치 의지를 내보였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결과 철원연장 추진으로 수도권 1시간 내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고, 군부대 이전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 지역 균형 발전을 유치 당위성으로 내세운다.

관부면 미활용 군부대 부지를 후보지로 정한 원주시는 여주~원주 복선전철 개통과 기존의 KTX, 고속도로, 원주공항 등 광역 교통망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운다. 또한 대학과 의료인프라를 활용한 선수 육성 및 관리여건이 우수한 점을 부각하고 있다.

강릉시는 이번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2,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신규 경기장 건설 대신 올림픽을 치러낸 오벌(스피드스케이트장)을 대체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은 최종 부지 선정을 마치는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한다. **정윤호기자 jyh89@**

강원도민일보

2024 02 13 ()

10

“혁신도시 공공기관 고향사랑기부제 함께해요”

시, 기부제·답례품 홍보 동참 독려

원주시는 최근 강원(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원주 고향사랑 기부제와 답례품을 홍보하며 기관 임직원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이번 행사는 혁신도시 입주기관 임직원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와 시가 올해 추가한 20대 품목을 포함, 총 68개의 답례품을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리플릿과 배너를 활용한 홍보 퍼포먼스도 펼쳤다.

시는 이같은 현장 행사 외에도 유튜브,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기부를 유인하기 위해 지역 특화 답례품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성과분석에

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수도권 지역 및 기업 대상 현장 방문 맞춤형 홍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강수 시장은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기부금 모금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다”며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민이 행복한 원주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민

강원도민일보

2024 02 13 ()

12

동해시 출산장려 인센티브 ‘최대 250만원’

관내 기관·기업·군부대 대상 출산 친화 직장문화 조성 목적 “인구소멸 대비 시책발굴 최선”

동해시가 지역내 기관·기업·군부대에 출산장려 인센티브를 최대 250만원 지급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번 인센티브는 개인이 아닌 기관에 지급한다.

시는 기관·기업·군부대를 대상으로 소속 직원의 2023년 출생아 수를 합해 5명 이상 50만원, 10명 이상

100만원, 20명 이상 150만원, 30명 이상 200만원, 50명 이상 2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일 사업장에 재직 중이어야 하고, 대상자·출생 자녀는 출생신고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 희망 기관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시에 신청하면 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포상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동해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3자녀이

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정의하고, 수도요금감면, 공영주차장 감면,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 경제적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조기·해외출산 장려금 지원, 12개월 미만 영아 전입장려금 지원, 아빠의 육아일기 체험단 운영 등을 하고, 3자녀 이상 가정 사교육비 경감 지원 등 다각적 인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980년 10만 1799명으로 개칭한 동해시는 2023년 1월 8만 9380명(-1만 2419)으로 9만 명대가 허물어진다. 1년 만인 지난해 12월말(8만 8625명)에

도 755명(0.9%)이나 감소했다. 함께 출산율이 지난 2021년 1.1명에서 현재 0.98명으로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는 동해시의 출생아 수는 지난 2010년 767명에서 2015년 667명, 2022년 400명으로 지속 감소하는데다, 현재 입산부 등록 수도 381명으로, 지난 2022년(455명) 보다 16%(74명) 줄었다. 이월출시 행정과장은 “인구소멸에 대비한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발굴, 내실있게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해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인수

2024 02 13 ()

강원도민일보

09

춘천 서면대교 건립 가시화 도로 확장 나선다

1200억원 투입 연내 착공 기대
서면지역 교통량 폭증 우려
시, 행정센터 일대 4차로 확장
정부 5개년 계획 반영 건의

춘천 도심지와 서면을 연결하는 서면대교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서면 일대의 도로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자 춘천시가 신매대교~서면행정복지센터 일대 2차로를 4차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 중도등에서 서면 금산리 일원을 연결하는 길이 1.2km의 서면대교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에 국비 600억원이 반영, 올해 당초예산에도 설계비 23억원이 정부 예산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어서 춘천시는 이르면 연내 착공도 기대하고 있다. 서면대교는 폭 25m, 4차로로 조성될 전망이다. 총사업비는 12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21년부터 추진돼 온 서면대교는 민선 8기 들어 구체화되기 시작했

다. 현재 도심지역과 서면을 연결하는 다리는 신사우동에 위치한 신매대교가 유일하다. 더욱이 제2경춘국도 등이 건립되면 서면 일원 통행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지만 도심지로 연결되는 다리가 적어 교통량 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면대교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면대교 건립이 가시화되면서 서면 일원의 도로 확장도 시급하다. 현재 신매대교를 중심으로 서면 지역의 도로는 2차로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서면대교와 맞물리는 서면행정복지센터 일원의 경우 현재 도로로는 서

면대교 건립 이후의 교통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감안, 춘천시는 신매대교~서면행정복지센터 3.3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이 제6차·국·국·국·국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 정부에 건의했다. 최종 반영 여부는 내년쯤 확정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서면 일원의 경우 국지도여서 춘천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국·국·국 5개년 계획에 포함 되도록 정부 설득에 나서겠다”고 했다.

오세현 tpagus@kado.net

2024 02 13 ()

강원도민일보

10

‘폐철도의 재탄생’ 치악산 바람길숲 5월 개통

우산동~반곡역 10.3km 구간
나무숲 산책로·잔디광장 등
‘활력·일상·힐링’ 테마 구성

원주 도심 속 명품 힐링 도보 길 조만간 개통한다.

원주시는 오는 5월 치악산 바람길숲 개통식을 갖는다. 지난 2019년 추진 후 5년여만의 완공이다.

치악산 바람길숲은 우산동, 중앙동, 봉산동 등 원주 도심 중앙을 관통

해 반곡역 등 관설동까지 이어지는 폐선된 중앙선 철도를 활용해 기획됐다. 우산동부터 반곡역까지 10.3km 구간에 조성 중인 치악산 바람길숲은 총 3구간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이 중 2, 3구간은 이미 완공됐다. 1구간은 주민 요청에 따른 추가 공사가 진행 중이다.

1구간은 한라비발디아파트부터 원주천 철교까지 2km로 ‘활력의 숲’이란 테마를 입혔다. 야자매트와 콘크리트로 포장되고 왕벚나무길 조성됐다. 현재 주민 요청에 따라 한라

비발디아파트에서 우산철교 구간을 새롭게 조성 중이다. 1구간에 포함된 옛 원주역 앞에는 잔디광장을 만들고, 철골 게이트를 설치해 테마 공간을 선보인다. 또 옛 원주역 공간을 활용해 180여면 규모의 공영주차장도 설치, 바람길숲 이용 편의도 한층 높인다. 한국철도공사가 옛 원주역에 유명 커피공장 유치도 진행 중이다.

2구간은 봉산동 배말타운아파트 앞에서 유교역까지 5.3km다. 1구간과 3구간의 연결 구간으로 휴식과 산책 등에 초점을 맞춘 ‘일상의 숲’으로

꾸몄다. 3구간은 ‘힐링의 숲’으로, 행구 2교부터 반곡역까지 3km다. 삼나무 116그루와 이팝나무 571그루를 식재해 살구나무길과 이팝나무길을 연출했다. 치악산을 배경으로 거닐 수 있는 새로운 도심 속 힐링 산책 공간으로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원강수 시장은 “3구간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추가 조성하고 바람길숲 구간 연장을 추진하는 등 원주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도심 속 명품 걷길 길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정태욱 tae92@kado.net

2024 02 13 ()

江原日報

11

횡성호에 450m 출렁다리 놓는다

165억원 투입 2027년 완공
지방재정투자심사서 결정

【횡성】횡성댐으로 만들어진 횡성호(湖)에 길이 450m 규모의 출렁다리 설치사업이 추진돼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횡성군은 갑천면 구방리 506 일원에 길이 450m, 폭 2m의 주탑 출렁다리를 건설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출렁다리는 도비 52억원, 군비 113억원 등 모두 165억원을 투입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6월 횡성호수길 관광자원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 7월 횡성 호수길 교량 설치 계획을 수립한 후 한국수자원공사와 강원자치도 관광개발과 사업 설명을 마쳤다. 하지만 2023년 4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처리됐다. 사업은 지난해 12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됐고, 원주지방환경청에도 사업 설명이 이뤄졌다.

이에 군은 이달 중 열리는 2024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횡성호 출렁다리 신설 여부

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횡성댐 건설과 담수로 형성된 횡성호수 주변에 조성된 호수길은 사계절 이색적이고 빼어난 자연 경관을 연출해 해마다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호수길의 6개 코스는 걷기 동호인과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갑천면 구방리 방향의 동산과 호수 반대편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구간에 출렁다리 설치를 추진 중이며, 4구간 노선을 변경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학렬기자

2024 02 13 ()

江原日報

10

강원FC 전용 구장 유치 불시 재점화

이슈 현장 춘천·강릉 경기장 건립 구상 공세

육동한 춘천시장 “기업혁신파크 수도권 편 접근 용이”
강릉시 “종합스포츠타운 내 건립 전액 시비로 조달”
김병지 대표 “장기적으로 논의할 사안” 유치 과열 우려

【춘천】강원FC 축구 전용 구장 유치를 위한 지자체 경쟁 불씨가 K리그 개막을 앞두고 되살아나고 있다. 2022년 강원자치도가 축구 전용 구장 건립 추진을 백지화한 후 움직임이 멈춰선 상태지만 강원FC 홈 경기 순회 개최 도시인 춘천시와 강릉시가 최근 경기장 건립 구상

을 다시 꺼내 들면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5일 강원FC 시즌권 구매 릴레이 동참을 위해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와 만난 자리에서 전용 구장 춘천 건립을 제안했다.

이날 육 시장은 남산면 기업 혁신파크 정부 지정을 전제로 “기업혁신파크 인근에 강원

FC 전용 구장을 짓게 되면 수도권 접근성을 통해 원정 팬 유입 면에서 구단도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시가 경기장 건립 후보지로 정한 근화동 하수종말처리장 인접 유희지가 문화 시설 등 타 용도 활용이 예정되면서 신도시 개발 사업지를 새 후보지로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육 시장은 지난해 강원FC 홈경기 직관과 원정 경기 단체 응원에 동참하며 전용 구장 춘천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또 최근 춘천갑 허영 국회의원이 축구 전용 구장 건립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슈를 재조

명하고 있다.

다만 이날 환담에서 김병지 대표이사는 전용 구장 건립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짧은 답변을 내놨다. 이미 춘천, 강릉, 원주 등의 유치 경쟁 과열을 겪었고 키를 쥔 도의 입장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선부른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유치 희망 지자체인 강릉시는 자체 재원으로 축구 전용 구장 건립을 준비하며 보다 공세적인 행보를 밟고 있다.

강릉시는 2030년까지 조성하는 종합스포츠타운 내 축구

전용구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비 4,300억원이 전액 시비로 조달되고 이 중 축구 전용 구장 건립에 700억~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릉시는 올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축구 전용구장 좌석 규모 등을 정할 방침으로 이르면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 강릉시 관계자는 “강원FC뿐만 아니라 강릉시민축구단 등 포괄적인 활용을 위해 축구 전용 구장 건립을 구상하고 있고 향후 국·도비 공모에도 적극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호·류호준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2 13 ()

06

고물가·고유가에 갇혔다...숨 막히는 강원도 소비심리

서비스업 동향 3분기 연속 감소세
국내여행 수요 해외 전환 분석
유가 상승·물가불안 지속 전망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비위축이 심화되며 강원지역 서비스업생산이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12일 통계청의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 생산·소매판매 동향'을 보면 지난해 4분기 강원지역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분기 대비 1.8%

감소했다. 앞서 2분기 -0.4%, 3분기 -1.0%에 이은 3분기 연속 감소세로 지난해 강원지역 서비스업생산은 0.5% 성장에 그쳤다. 지난해 2022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국내 관광객 유입으로 서비스업생산(6.4%)이 회복된 것과 비교해 크게 위축됐다.

특히 강원과 같이 관광업 비중이 높은 제주(-1.2%)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비스업 생산이 줄었다. 올해 성장세가 둔화된 것은 강원, 제주 등으로 몰렸던 국내 여행 수요가 해외로 빠져 나간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도내 소매판매는 3.3% 증가하며 2022년(-0.7%) 대비 증가 전환됐다. 대형 마트는 2022년 2분기(-1.7%)부터 하락세로 지난해 1분기(-11.7%), 2분기(-14.1%)에는 두 자릿수 하락폭을 보였다. 전문 소매점도 0.4% 하락하며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슈퍼·잡화·편의점의 집이 10.8% 증가, 강원 소매판매의 증가 전환을 이끌었다.

다만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 국제유가 상승에 강원지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 가격도 오름세를 이

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12일 오후 4시 기준 강원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 당 1620.68원으로 지난해 2월(1602.97원)부터 1600원대를 기록 중이다. 주간별로는 보면 2월 첫째 주 l 당 1610.10원으로 6주만에 1600원대에 재진입했다.

강원지역 경유의 경우 동시간 기준 l 당 평균 1526.59원으로 지난해 2월(1515.56원)부터 l 당 1500원을 넘어 상승 중이다.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

시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석유 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름세로 전환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이 최근 상승, 국제유가는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상승세를 피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 가격이 다시 오르는 등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우진·황선우

강원도민일보

2024 02 13 ()

14

정선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선 기능보강

군, 수영장 바닥타일 교체 등
운영 컨설팅·안전점검 지속
"생활체육 활성화 도시 거듭"

정선군이 정선국민체육센터 기능보강 공사에 나섰다.

군은 지난 2011년 정선읍 애산리 432번지 일원에 국민체육진흥기금 31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85억원을

들어 연면적 2935.32㎡,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25m 길이의 6개 레인을 가진 실내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다목적실,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했다. 국민체육센터는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지난해 동안 4만 226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시설 노후로 인한 수영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억원을 들여 758.5㎡ 면적의 바닥타일을 오는 7월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공공체육시설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주민의 체육·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재성 문화체육과장은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한 관내 체육시설의 주기

적인 기능보강을 통해 정선군이 생활체육 활성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국민체육센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요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성인 기준 1일 2500원, 월 정기 이용 요금은 5만 2500원이다. 수영강습은 매달 20일에서 말일까지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유주현

2024 02 13 ()

16

강원도민일보

고성 거진항~화진포 해양누리길 내달 착공

170억원 투입 전망대 등 조성
총 2.9km 해안데크 산책로 설치
2025년 하반기 준공 목표

고성 거진항~화진포해양누리길 2.9km가 2025년 조성된다.
군은해양누리길 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3월 중 착공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화진포 해양누리길 조성사업은 거진항에서부터 화진포 김일성 별장까지 도보로 탐방할 수 있는 해안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다. 총 2.9km의 해안 데크 산책로가 설치되고 이송객 승터와 관광편의시설은 물론 핵심시설인 해상 전망대가 조성된다.
오는 3월 착공해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비 등 총사업비 170억원이 투입된다
해양누리길은 고성 최대 여항인 거

진항과 수려한 해양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화진포 권역을 연계하는 관광자원으로 조성된다.
이곳에서 국내 최대 석호인 화진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물론 동해안 비경과 기암괴석, 바다 조망을 감상하면서 걷게 된다.
이 구간은 천혜의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그동안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던 비공개 지역

이다. 군부대와 고성군의 긴밀한 소통·협업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모든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함명준 군수는 "화진포 해양누리길 조성을 통해 먹거리가 풍부한 거진항 관광권역과 휴양 중심의 화진포 권역을 연결해 체류형 관광 거점을 만들겠다"며 "남북관계 경색으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산

2024 02 13 ()

15

강원도민일보

양구 스포츠행정복합타운 조성 용역 착수

양구읍 하리 일원 2027년 착공
스포츠산업 연계 754억원 투입
빌드업 센터·숙박 플랫폼 건립

스포츠행정복합타운이 오는 2030년 양구읍 하리 일원에 조성된다. 착공 시점은 2027년이다.
양구군은 최근 역세권 스포츠행정복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23년 지역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양

구역세권 스포츠행정복합타운 사업이 선정됨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 단계로 2026년 12월까지 진행된다.
군은 용역을 통해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역개발계획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지구경관계획 △농지·산지전용 협의 △실시계획인가 △기본 및 실시계획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군은 향후 제영향평가 용역,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신청·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스포츠행정복

합타운 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양구읍 하리 237-1번지 일원에 2030년까지 스포츠행정복합타운과 스포츠 빌드업 센터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754억원이 투입된다.
스포츠와 관광 등 스포츠 산업과 연계한 행정시설인 '스포츠행정복합타운'과 사계절 생활 스포츠 센터인 '스포츠빌드업센터'를 비롯해 '공유숙박 플랫폼', '고령자 복지 주택' 등 멀티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

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것이다. 양구군은 2023년 6월 공모를 신청해 현장평가와 종합평가 등을 거쳐 7월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완화, 구역 지정·인허가의제 등 73종의 규제 특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흥원 군수는 "동서고속화철도 개통 시기에 맞춰 양구역사 주변에 도시기반시설과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군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이동명

2024 02 13 ()

江原日報

04
춘천·원주·화천 ‘교육발전특구’ 공모 신청

속보=춘천시, 원주시, 화천군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지난 9일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1차 공모(본보 1월5일자 4면 등 보도)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주도로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기관 등이 협력해 교육혁신 청사진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3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는다.

춘천·원주·화천은 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단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특구 선정을 위해 활발

시범사업 1차 도전, 도교육청과 업무협약 추진단協 구성
내달 초 발표 예정 ... 선정 땐 3년간 최대 100억 지원받아

하게 움직이고 있다.

춘천시는 전국 유일의 글로컬대학 두 곳을 보유한 도시로 글로컬대학 활용 교육거버넌스 구축, 마을돌봄 교육공동체 구성을 통한 춘천형돌봄 체계 등 춘천만의 장점을 내세웠다.

김상희 춘천시 교육도시과장은 “특정 정책 1~2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부터 노인까지 선순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도시 전체를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원주시는 혁신·기업도시 내 늘봄 학교 지원, 반도체교육원·미래고·한라대 등과 연계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자율형공립고 우수학생 선발 지원,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태봉 원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지역 내 교육수요 충족에 주안점을 뒀다”며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천군은 완성형 온종일 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돌봄·주거 걱정없는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빈틈없는 교육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이대훈 화천군 교육정책담당관은 “교육발전특구 선정은 군 정목표인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건설’의 완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강동휘기자 yulnyo@kwnews.co.kr

2024 02 13 ()

江原日報

16
화천군 인구 2만3,000명 붕괴

【화천】화천군 인구 2만3,000명 선이 붕괴됐다.

화천군 인구는 올 1월 말 기준 2만2,942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6월 2만3,961명으로 2만4,000명선이 붕괴된 이후 1년6개월 만에 다시 2만3,000명선 아래로 떨어졌다.

지역에서는 국방개혁2.0으로 제27사단이 해체된 것이 인구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2만2,942명... 2만4천명 무너진 후 1년6개월 만
군, 행정복합타운·산업단지 조성 등 대응 방안 계획

실제 사단 해체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9년 7월 이후 화천의 인구는 1,895명이 줄어 사단해체로 인한 군인 가족의 대거 이탈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화천군이 지역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추진한 군부대

간부 주민등록 이전을 통해 주소를 옮긴 간부들 역시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군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신읍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행정복합타운 조성, 귀농·귀촌인 주거타운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 사내면 옛 항공대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15~20개의 업체를 유치, 500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며 “주거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인구가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영기자 kyjang3276@

강원도민일보

2024 02 13 ()

/ 19

강원대병원 삼척분원 진전있어야

-동해권심혈관 총족률 5.9%...치료휴양산업도 관건

강원 동해권 중진료권 치료가능 사망률이 도내 평균치보다 높은 52명에 달한다는 보고입니다. '치료가능 사망률'이란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을 가리키는 수치입니다.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 기준으로 강원은 비수도권 시도 중 가장 많은 49.61명이 발생해 열악한 의료서비스 환경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료가능 사망률 전국 평균은 43.7명이고, 의료기반이 월등한 서울의 경우는 38.56명으로 나타납니다. 곧 삼척, 동해 등 강원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살리지 못한 주민이 서울보다 10명 더 많습니다. 곧 차별적이고 구조적인 의료환경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그만큼 더 겪으며 사는 것입니다.

조희숙 강원대병원 공공부원장은 강원 동해권의 경우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것은 물론 필수의료분야 자체 총족률도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년 질환 발생이 잦은 심혈관 분야의 경우 필수의료 자체 총족률은 5.9%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심혈관 분야 전국 평균 총족률이 40.1%인 것에 비하면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더욱이 동해권에 심뇌

혈관 관련 인증 의료기관이 전혀 없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환자 전원이 높고, 연령표준화 사망률도 증가 추세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중증 응급의료 이용환자 총족률도 26.%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국 평균 42.7%에 비해 많이 밀도는 실정입니다. 지역에서 중증질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이유입니다. 최근 삼척시는 강원대, 강원대병원과 공동으로 강원남부권 지역의료 혁신 및 특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시민들은 불가피한 원정 진료로 인해 중증환자는 사망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강원대병원 삼척분원이 하루라도 빨리 설치돼 심각한 의료 소외 현상을 덜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삼척시는 강원대 도계캠퍼스의 보건과학대학과 강원대병원 삼척분원, 삼척의료원 연계를 통해 암치료 돌봄 휴양산업으로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강원대병원 삼척분원 설치의 의료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 첫 단추를 끼워야 하는 핵심이기 전에 가장 흔한 질환인 심혈관 자체 총족률 5.9%라는 터무니없는 수치를 개선하기 위해 시급히 실천단계로 진전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2 13 ()

/ 19

동서고속철 성패 역세권 개발에 달려

-경유지 머물지 않도록 전략세워 개통 대비해야

서울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 철도 건설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총 사업비 2조4377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수도권 강원시대'를 앞당길 교통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선은 경춘선 종착역인 춘천역에서 출발해 화천·양구·인제·백담·속초까지 총연장 93.7km를 연결합니다. 2027년 노선이 개통하면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39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개통과 함께 서울과 속초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기차가 정차하는 지역의 경제 파급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 개통에 대비한 전략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경유지에 머무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지역별 역세권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개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속초에서 착공한 철도 건설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설악산 일대를 관통하는 협의를 마친 데 이어, 8공구 가운데 터키 구간부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구간 공사에 빨리 착수한다면 2027년까지 개통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철도가 운행하면 동시 개통 예정인 강릉~제진 동해북부선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자체의 역세권 개발도 일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군 등 접경지 지자체의 정책은 주목할 만합니다. 인제, 화천, 양구군은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에 도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2개 역이 들어설 인제군이 140억원으로 가장 많고, 양구군 70억원, 화천군 70억원이 배분됐습니다.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한 인제군의 경우 복합환승센터와 호수권 시티투어, 귀농 귀촌 거점 주거단지 등 목적형 관광지 육성을 위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천군과 양구군도 읍내상권과 역을 연결하기 위한 지방도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의 핵심은 승객들을 지역에서 머물게 하는 일입니다. 경유역이 아닌 목적지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물류와 관광 기반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당장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조성도 중요합니다. 또한 고령화 추세에 맞춘 고급 요양 리조트와 한방병원 건립도 검토할 만합니다. 이를 위해선 세제 혜택과 부지 제공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4 02 13 ()

/ 19

의대 증원 반발 확산, 국민 피해 우려 총파업 안 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 가운데 의료계 전체로 반발이 확산되면서 4년 만에 의사 파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치달을 경우 의료 대란에 따른 국민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인병원 중심의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에 이어 15일 시·도 단위 쫓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의대 증원 저지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응급 전문의로 구성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동은 정부가 초래한 응급의료 재난 사태 위기단계에 맞이하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번 재난 사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협의회를 적극 지지하며 만약 단 1명의 희생자라도 발생할 경우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체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협에는 전국 수련병원 의사 1만5,000명이 가입돼 있다. 국내 의료 수요가 대학병원 등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파업 시 의료 공백을 피할

수 없다. 앞서 대전협이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8.2%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면 파업 등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들은 대전협 결정에 따르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국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을 때의 대규모 의사 파업이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당시 집단 휴진에 전공의가 대거 동참해 의료 현장에 혼란이 빚어졌다. 지역·필수 의료 분야의 붕괴를 막아야 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다. 의료계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89.3%)는 증원에 찬성한다는 보건 의료노조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을 외면하고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첫걸음일 뿐이다. 지금 지방은 연봉 수억원을 내걸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은 환자를 불모로 한 ‘파업 불사’만 외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도 끝까지 의사단체와의 소통으로 갈등과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江原日報

2024 02 13 ()

/ 19

총선 승리 조건, 설 연휴 민심을 반영한 공천이다

설 연휴가 끝났다. 여야 4·10 총선 주자들이 전하는 설 연휴 민심을 요약하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느끼고 있는 바다. 바닥을 찍는 듯 보였던 경기가 다시 냉각되며 경제 한파가 매서워질 조짐이다. 2023년 11월 생산과 소비, 투자 등 3대 지표는 모두 하락, ‘트리플 감소’로 돌아섰다. 산업생산지수가 전월보다 1.6% 줄어 3년 6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건 심상치 않다. 두 달 연속 늘었던 반도체 생산이 다시 줄어든 것도 우려된다. 더 불안한 건 올해다. 경기 반등은 기대하기 힘들고 물

가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올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1%로 낮췄다. 3연

속 하향 조정이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2.6%로 높였다. 전반적인 비용 압박이 예상보다 크다는 결론이다. 가족과의 덕담은 잠시, 걱정이 더욱 많았던 올 설이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도 정치권은 서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온통 4·10 총선에 쏠려 있다. 정작 국민은 다가오는 총선보다는 일자리 부족과 경기 침체 등 민생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들은 총선의 유불리만 저울질하고 있다. 진짜 민생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달리는 게 설 민심이다. 여야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설은 총선이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어느 때보다 설 밥상 여론의 향배가 향후 선거 판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여야 총선 주자들은 민심이 차갑게 식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어느 총선 주자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청년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만사를 정쟁화하는 모습에 등을 돌린 지 오래다. 정치의 기본은 민심을 정확히 읽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기 불황과 현실적 고통에 대한 하소연은 정치권의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실망한 민심에 먼저 귀 기울이고 이를 토대로 해법을 제시하는 당이 총선

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길은 국민 눈높이에서의 공천이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8일까지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쟁력 여론조사

새해 경기 반등 힘들고 물가 더 오를 듯

여야, 민생을 살리는 대안 놓고 경쟁을

자기 계파 인사 심기 공천 땀 더 큰 부메랑

를 진행했다. 이미 2차 심사 결과까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3차 발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보다 앞서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 조사를 실시하고, 면접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 민생을 둘러싼 경쟁이 아니라 단지 자리 하나 차지하려는 것이거나 자기 계파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밀어 넣는 공천이 이뤄진다면 결과는 뻔하다. 국민을 실망시킨 인사들이 대부분 공천을 받는 상황이 현실화되면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보겠는가. 여야는 이제 유권자들이 지지부진, 지리멸렬한 정치권의 모습에 점점 질려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선거가 아무리 구도가 중요하다고 해도 민생을 등지고 교만한 정당이 선택받은 적은 없다.